

“엄마한테 전화하게 만드는 드라마 됐으면”

“전성기가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마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부터 올해 평일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 기록을 쓴 KBS 2TV ‘동백꽃 필 무렵’까지, 카멜레온 같은 매력과 연기력으로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배우 이정은(49)은 이렇게 말했다. 특히 이정은은 ‘동백꽃 필 무렵’에서 동백(공효진 분)의 엄마 정숙 역을 맡아 눈물 나는 모성 연기를 선보였다.



전성기를 맞은 배우 이정은이 최근 종영한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에서 눈물 나는 모성을 선보였다. 드라마는 올해 평일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이정은은 드라마 종영 후 4일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에서 한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치매 소재 때문에 tvN ‘아는 와이프’ 때와 이미지가 겹칠까 주저했는데, 제작진이 ‘다른 이야기 가 될 것’이라고 설득해줘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는 젊게 다니는데, 가마를 쓰고 메이크업을 안 하면 나이가 들어 보인다. 공효진과 10살 차이인데, 사실은 상대보다 30살 더 많은 캐릭터를 5살 차이의 배우와도 연기해냈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공효진이 가진 자연스러운 연기와 배려 덕분에 연기가 편했다”고 강조했다.

배우 이정은 ‘기생충’·‘동백꽃...’ 연타 흥행 전성기 눈물 나는 모성 연기...올해 미니시리즈 최고 시청률

이정은은 ‘동백꽃 필 무렵’의 의미를 ‘다양한 모성의 조명’으로 꼽았다. “현대 사회에서 대가족이 붕괴하는데, 피를 나누지 않더라도 새로운 조합이 생기고 있다. 중년이 되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정숙도 일반적인 엄마 역할은 아니었죠. 엄마의 다각적인 모습이 보이는 작품이라 의미가 있었어요. 다들 ‘보고 나면 엄마한테 전화하게 만드는 드라마’였을 거고요. 참, 제 엄마도 ‘동백’이 끝나니 볼 드라마가 없다”고 하더라

오는 11월 6개월만의 신보...6곡 수록



‘아시아의 별’ 보아(본명 권보아·33·사진)가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보아가 오는 11월 두 번째 미니앨범 ‘스타리 나이트’(Starry Night)를 발매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6월에 내놓은 싱글 ‘피드백’(Feedback) 이후 약 반년만의 신보로, 총 6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2000년 데뷔한 보아는 내년 데뷔 20주년을 앞둔다. 탄탄한 노래실력과 뛰어난 춤실력으로 독보적인 솔로 여가수로 사랑받아 오고 있다. ‘넘버 원’(No.1), ‘아틀란티스 소녀’, ‘마이 네임’(My Name), ‘걸스

온 탑’(Girls On Top) 등 내놓은 곡마다 음악방송과 차트 1위를 휩쓸었다. 일본에서 2002년 발매한 첫 정규앨범 ‘리슨 투 마이 하트’(Listen to My Heart)는 한국 가수 최초로 오리콘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이후 동일 차트에서 6번 정상을 차지해 해외 아티스트로는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또, 2년 연속 음반상을 비롯, NHK 가요정백전에 출연하는 등 일본에 케 이팝을 전파하는데 앞장섰다. 한일 양국에서 여성 솔로 가수로 두각을 나타낸 보아는 ‘아시아의 별’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연합뉴스

우울증·공황장애 강다니엘 당분간 휴식

음악프로그램 녹화 불참

가수 강다니엘(23)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당분간 휴식을 취한다.

소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강다니엘이 잦은 건강 악화와 불안 증세에 시달려 올 상반기 병원을 찾았고 우울증 및 공황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더욱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했다”면서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라는 결론에 다다랐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활동 역시 정상적인 소화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디지털 싱글 ‘터칭’(TOUCHIN) 활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다니엘은 전날 자신의 팬카페에 악플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서 “너무 힘들다. 누가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다.



4일 오전 녹화 예정이던 MBC플러스 음악프로그램 ‘쇼챔피언’에도 불참했다. 강다니엘은 2017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우승하며 같은 해 8월 그룹 워너원원으로 데뷔했다. 지난 1월 워너원 활동이 종료된 뒤 솔로 활동을 계획했지만 당시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 휘말렸다. 그 탓에 지난 7월 솔로 앨범 ‘컬러 온미’(color on me)를 발매했으나 방송활동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 9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중재로 양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되면서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강다니엘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휴식을 선언하며 또다시 활동이 주춤하게 됐다. /연합뉴스

공민지, 소속사 상대 계약정지 가처분 기각

“수익금 배분 없어...소송 내겠다” vs “대화로 해결”

결그룹 투에니원(2NE1) 출신 공민지(사진)가 소속사 더뮤직웍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공민지는 계약 해지를 위해 분안소송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뮤직웍스 측은 4일 공민지 측의 가처분 신청 기각 사실을 밝히고 “당사자 간 깊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원만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민지는 이후 SNS에 “짧지 않은 법적 공방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며 “계약해지를 위해 소속사와 합의 하거나 가처분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마무리하길 원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이제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공민지는 “계약 당시 소속사는 저에게 연 4회 이상의 앨범을 약속하며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4년간 앨범은 1개 뿐이고 활동도 거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수익금은 1원도 배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BTS 슈가, 할시 앨범 참여

13번 트랙 ‘슈가의 인터루드’

그들 방탄소년단 슈가가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를 피쳐링한 미국 싱어송라이터 할시(Halsey·25) 앨범에 참여한다.

미국 빌보드 등에 따르면 할시는 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다음 달 17일 발매되는 새 앨범 ‘매닉’(Manic)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13번 트랙에 ‘슈가의 인터루드(interlude·간주)’라고 적혀 있다.

할시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도 “슈가는 놀라운 뮤지션이고, 그가 이번 앨범이 다루는 내용과 감성, 바이브에 정말 잘 맞다고 생각했다”며 “그가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할시의 새 앨범에는 슈가 외에도 1990년대 인기 여성 로커 엘라니스 모리셋과 미국의 래퍼 겸 싱어송라이터 도미니 파이크 등 쟁쟁한 뮤지션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7일까지 제11회 ‘인의예술제’ 개최

인의예술회, 목포무안신안축협 일로지점서

사단법인 인의예술회(회장 김기형)가 제11회 인의예술제를 개최한다.

행사는 5일 목포무안신안축협 일로지점에서 예술제 개막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인의예술회는 무안군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을 육성하고 김시라 폼바 보존 및 계승, 학술연구, 장학사업, 봉사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다.

인의예술회 작품전은 서양화 한국화 서예 캘리그래피 도예 사진 디지털아트 등 30명의 작가가 참여해 70여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연수 기자

5일에는 ‘지역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진행되며 7일에는 ‘김시라 폼바 이야기’가 1대 폼바 정규수씨와 함께 진행된다.

지역향토문화계승 발전을 위한 세미나는 박성안 명예회장이 ‘제1대 폼바 정규수 배우 탐구와 인의예술회가 나아가 방향’에 대해, 김인재 인화대 교수가 ‘김시라 폼바에 담긴 사상과 철학’, 김영주가 전대 교수가 ‘지역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방향’,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이 ‘일로의 유래와 영상각 이야기’에 대해 발표한다. /이연수 기자

오늘의 운세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12월 5일 (음력 11월 9일)



48년생 권위에 도전하는 불손한 자가 나온다. 60년생 작은 이익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72년생 서럽고 힘든 일이 있겠다. 84년생 잘 난 착하면 미움을 받는다.



49년생 진정한 행복이란 만족 속에 있다. 61년생 운이 열리고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73년생 돈과 행운이 따른다. 85년생 길고 짧은 것은 대야 안다.



50년생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62년생 어려울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다. 74년생 꺼진 불도 다시 보자. 86년생 지나간 과거는 잊고 새 출발을 하라.



51년생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63년생 재주는 것이 이기는 길이다. 75년생 운이 따르니 모든 것이 잘 된다. 87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52년생 지인에게 아쉬운 부탁을 할 수 있다. 64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76년생 불길한 날이니 다투지 말라. 88년생 이성의 위험한 유혹을 조심하라.



41년생 턱을 쌓으면 하늘이 돕는다. 53년생 너그러운 사람에게 더 끌리는 법이다. 65년생 세 사람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77년생 역발상이 필요하다.



42년생 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54년생 모처럼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 66년생 대결이 아닌 타협이 절실하다. 78년생 자신감이 반이다.



43년생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체면을 잃는다. 55년생 확신이 없다면 결정을 늦춰라. 67년생 직장상사의 후원을 받는다. 79년생 망신수가 있겠으니 조심하라.



44년생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56년생 아무래 찾아봐도 해결책이 없다. 68년생 경쟁자를 알아야 보지 말라. 80년생 운세가 불길하니 다투지 말라.



45년생 의리를 지키면 보답을 받는다. 57년생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지막에는 크게 이룬다. 69년생 바꾸고 변화가 필요함. 81년생 쉽게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



46년생 분수를 지키면 곤란할 일이 없다. 58년생 지금은 현상유지가 정답이다. 70년생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가 와도 두렵지 않다. 82년생 승부를 걸 때가 왔다.



47년생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다. 59년생 뜻은 높으나 실현되기는 어렵다. 71년생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다. 83년생 답답함과 그리움이 쌓여만 간다.